

주일에배	대방(오전)	7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비대면예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 30분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월 31일 (제1082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장인과 달인

한 가지 기술을 연마하여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달인(達人)이다. 통달할 달(達), 사람 인(人)을 쓰는 것으로 볼 때 그 분야에 통달한 고수가 달인인 것이다. 장인(匠人)은 우두머리 장(匠), 사람 인(人)으로 어떤 기술에 독보적인 존재로 어떤 한 가지 기술에 정통한 사람을 말한다. 요즘 말로 하자면 전문가 중의 전문가를 일컫는 말이다.

나는 장인과 달인의 영광은 노력이란 습관이 만들어낸 명작(名作)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달하기까지는, 고수가 되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죽기 살기로 배우고 익혀야 가능한 단계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분야의 거장으로서 대접을 받고, 그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게 된다.

노력은 최고의 무기다. 노력을 상대할 것은 어느 것도 없다. 노력은 힘쓸 노(努), 힘력(力)을 쓰듯이 그야말로 나의 있는 힘을 다해서 나와 싸워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불세출의 천재라는 아인슈타인조차도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라고 자신의 업적은 노력의 산물이고, 명작임을 시인했다.

목회 초에 토레이 신부를 만난 적이 있다. 목회 성공 비결을 배우고자 함이었다. 그때 신부님이 내게 해준 말은 딱 한 마디, "흠은 절대 속이지 않는다."였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었다. 즉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심비에 새기고 밤을 낮 삼아 노력하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 하루 두 끼만 먹어가며 기도하여, 마침내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예수중심 교단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설 수 있었다. 그렇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5~6).

노력한 만큼 얻고,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러니 노력하라. 하면 된다.

먼저 내가 불이 붙어야 한다

벌써 세 차례나 경험한 비대면예배 후의 재회지만, 이번은 오히려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다시 만나는 것이라 그런지 비록 10%로 제한된 대면예배이긴 하나 그 기쁨이 남달랐다.

서울교회 같은 경우, 1부 예배부터 각 교구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1, 2체육관으로 분산하여 예배를 드렸다. 모든 것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인지라 시행착오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만은 절실했다. 목사님은 비록 10%의 적은 인원이지만

저서 침륜에 빠져있다면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열 처녀 모두가 등불을 태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담긴 등불 외에 따로 기름을 담은 그릇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담긴 등불만 들고 나온 것입니다. 등불의 기름이 다하기 전에 신랑이 오리라 생각

게 다가가 불이 활활 탈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고, 유용한 정보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충전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보조배터리를 챙겨서 다닙니다. 하시라도 충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 미련한 자들은 보조배터리 없이 외근을 나갔다가 충전할 곳을 찾지 못하고 급한 연락은 받아야 하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 발만 동둥 구르다 남의 핸드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대면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2체육관 예배 광경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

"혹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침체에 빠지고 교인도 30% 급감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왕성해질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가가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목회자들부터 불이 붙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던지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성도들을 불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자신조차 불이 다 꺼

한 것이죠. 준비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는 이렇게 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넉넉히 따로 기름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려보지 뭐'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신랑을 만나려는 절실함이 부족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필코 신랑을 만나겠다는 각오가 있었기에 넉넉히, 부지런히 준비한 것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는 당연히 활활 타올라야 하고, 불꽃이 사그라드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

폰을 빌리려 합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다각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자 말입니다. 내가 오래 전에 방독면을 쓰고 다닐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비밀은 성령충만입니다. 내 마음에 부흥의 불이 붙지 않고서는 절대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1, 2체육관 총 600명 분산해서 참석)

◆1부(7시)예배: 강서지역전체 + 광명, 양천, 오류, 고척교구 참석

◆2부(10시)예배: 강남지역 나머지교구 + 교육부 참석 ◆3부(2시)예배: 강북지역 전체 참석

수요일예배(88체육관 사정으로 잠시 중단)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7:3~8)

핑계 대지 말고 찾아서 개발하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예비하셨다고 했지, 찾아 안겨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가 학교에 보내주지만 공부는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할 일을 사람이 하게 하십니다. 자고로 대업을 이을 자식은 곱게 키우는 법이 아니니까요.

무용(無用)한 것을 유용(有用)한 것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는 이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네가 찾으려고 하면 찾게 되어 있어. 내가 다 준비해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고 병든 것을 정말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 ‘아~ 요즘이 기회구나. 지금이 찾을 때구나.’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요즘 서울교회 성전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보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건물과 상업점과 주택이 싸게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발품을 팔고, 정보에 축을 세우면 그리 무리하지 않고도 가게도, 집도, 땅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세 살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가게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휴, 그렇게 낮은 집을 사서 뭐해요?’ 하십니까? 지금 출고된 자동차도 땅에 한 번 구르는 순간 중고가 됩니다. 집이 다 중고지 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리모델링하면 되지요. 그럼 새집이 되고, 집값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 한 명이 좀 오래된 구옥을 좋은 가격에 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가서 보니 정말 좋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정말 이 집을 사려고 이리저리, 이런저런 정보, 또 아는 지인까지 동원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싹 고쳐놓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죽은 땅, 죽은 기업, 죽은 가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리모델링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머거리, 병어리, 앓은뱅이, 꼬부라지고, 죽은 자들을 살려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

다. 베드로요? 사실 예수님의 리모델링으로 탄생한 작품이지요. 사도 바울이요? 당연히 못 쓸 것을 다시 고쳐 쓰신 것 아닙니까?

60이 넘은 어느 여자 성도가 제게 “목사님, 결혼해도 될까요? 결혼하자는 남자가 있는데요.” 하길래, “당연히 해도 되지. 인생은 리모델링하는 거야. 새롭게 시작해봐.” 했습니다.

찾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서 못 찾는 것이지, 못 찾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 전부터 골프를 했으니 골프경력이 40년은 족히 넘었습니다.

그런 제가 꼭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양쪽으로 쓸

수 있는 퍼티였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여기저기 찾아 다녀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데 그걸 어디서 찾았는지 압니까? 미국 애틀랜타에서 찾았습니다. 찾고자 하니 미국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내가 교회에 쓸 부품을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국내가 너무 비싸다고 중국으로 휙 하니 날아가 할당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옆에 있으니 찾아라.’ 이리 시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없으면 인천도 가보고, 부산도 가봐요. 한국에 없으면 외국에 나가서 찾아야지요. 원양어선이 됩니까? 우리나라 근해에 없는 물고기를 찾으러 멀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구 반대편 칠레 집회에 가서 직접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봤다니깐요. 저도 구원할 영혼을 찾으러 지구를 150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하심은 점차 반경을 넓혀서 나중에는

멀리까지 구원받을 성도들을 찾아 나서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주로 찾아나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화성에 우주식민지를 만들려 하고 있고, 화성을 탐험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나만 우물 안 개구리오, 방안통수처럼 있음 어찌 되겠습니까? ‘주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애야, 좀 찾아 나서라.” 하지 않으실까요? 어느 교회

자매들끼리 모여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배필을 달라고. 그런데 몇 년이 되어도 아무도 결혼한 사람이

없었습니
다. 보다
못한 목사
이 그러셨
다잖아
요? “그
기독교만
하면 남
자가 찾아
옵니까?”

나가서 찾으세요!” 그럼요, 찾아야 찾습니다. 분명히 찾으려면 당신을 위해 예비된 기업, 집, 땅, 건물, 배필, 직장, 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교회 성전도 분명히 예비 되어 있는 것을 믿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지금은 소천하신 어머니를 위해 옷을 찾아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느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老)가수가 빨간 옷을 입고 나와 노래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아! 어머니에게도 저런 옷을 입혀드리고 싶다.’ 싶어 백화점 이곳저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주일에 제게 밥을 해주는 집사님들에게 좀 찾아봐달라고 하니깐 그들이 알아보고는 이 태원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사서 어머니에게 입혀드렸습니다. 그때 그 옷을 입고 찍은 어머니 사진이 지금도 제 방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열두 해 혈루증으로 고

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그 병을 낫고자 정말 여기저기,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막5:26). 그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에 섞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나음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까지 들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을 앓는 친구를 둔 네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까?’ 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지붕을 뚫자. 나중에 고쳐주면 되지.’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저 역시 국내에서 이단이니, 잘못되었다느니 하며 핍박이 올 때 눈물로 기도하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주님, 제게 명성(名聲)이란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현실은 아주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주님은 내게 국내가 아닌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시고 대로를 열어 주셔서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만물을 상품으로 보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안 하기 때문이고, 안 하는 이유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먹은 소가 물을 찾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갈급한 심정일 때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을 갖기 원합니까? 찾아보세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직장을 갖기 원하십니까? 찾으시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면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돈이 적으면 안 되고 하며 단서를 다니까 없는 것이지 내가 들어가서 그 가게를, 그 기업을 리모델링 해보리라 하면 왜 직장이 없겠습니까?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은 없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정자 앞에 물이 흐르게 하면 됩니다. 상대를 리모델링하면 되지요. 찾고자 하면 찾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찾아보세요. 당신에게 딱 맞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깨달은 자의 기쁨

예배의 회복

주일예배 후, 아내는 딸을 데리고 총회장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러 갔다. 코로나 사태로 큰 1년 간 현장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안수기도라니... 얼마나 기대하는 맘으로 차례를 기다렸을까!

“오늘 말씀 잘 깨달았니?”

총회장 목사님께서 특유의 힘 있는 음성으로 딸아이에게 물으셨단다. 아이는 두 눈을 맞추고 목사님께 또렷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하시는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 그래? 그럼 엄마에게 꼭 물어보렴.”

초등학교 5학년에게서 어떤 멋진 답을 기대하겠느냐마는, 그래도 좀 지혜롭게, 퐁퐁하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순간, 무안하셨을 총회장 목사님과 곁에서 뺨뺨했을 아내,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부끄러워 이불킥을 날린 딸 아이를 생각하며 다음 날 가족회의를 했다.

“아빠는 어제 일로 인해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솔직히 백 개 중에 다섯 개는 좀 부끄러운 게 사실이야. 그래도 아흔다섯 개는 감사했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잖아? 거짓말하지 않는 게 어디야, 잘했어!”

그러면서 대책(?)을 함께 나누어 보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낮부끄러운 일만 반복할 순 없지 않겠는가! 그래,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요, 깨달음은 영원하다.

해서 실천에 옮기기로 한 것이 ‘말씀 노트 쓰기’였다. 주일마다 노트를 챙겨가서 주제와 말씀, 그리고 깨달은 점들을 기록하자고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말씀 노트도 그 자리에서 직접 골라 선물해줬다.

실수? 누구든 한다. 실패? 원하지 않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잘잘못과 관계없이 경험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여기서 배우려는 자세’가 아닐까? 단지 깨닫고 배우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된다.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배움의 끝은 실천’이니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방법도 생각해야 하고, 하나하나 꾸준히 실천에 옮길 행동력도 필요하다.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이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학습하는 사고’를 지녔다는 점이 아니겠는가! 경험을 통해 깨닫고, 실패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학습하는 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다.

단 한 번의 다운으로, 단 한 번의 경기로 내 인생 전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되지 않는 법이다. 누구 말처럼 내가 먼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종료 벨이 울릴 때까지 경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때까지는 너와 나 우리 모두 오뎅이 인생이 되어 보자. 아니 그저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깊고, 보다 단단해지는 성숙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 항상 들어온 말씀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예배를 보고 있는 시청자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었다. 마치 큰 공연을 보듯 관람자의 모습이 내게서 느껴졌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얼른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목사님은 늘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로 인해 축복과 저주가 갈린 것처럼. 다행히 제한적이지만 대면예배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내가 다짐한 것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성전에서만 진정한 예배자가

내가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것 아니겠는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앞으로의 세상은 어찌 펼쳐질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형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노라’(마18:20)고 하셨는지 모른다. 그러나 예배 형식이 바뀔지라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은 예배자의 모습과 마음 자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곳이 곧 성전일 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4:23).

이은성
es2563@naver.com



신현명 목사

은혜 안에 머무는 연습

나는 그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성으로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한 가지 일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그중의 한 명이 제인 구달이다. 그녀는 전문적인 학위가 없었지만 동물들을 연구하기 위해 조수 노트를 마다하지 않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정글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인 구달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 제인 구달이 밀림 속 동물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방법은 단 하나, 그들 곁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다. 성급하게 그들에 대해 공부하려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동물들이 자신을 믿어줄 때까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일체 하지 않고 그들이 다가오도록 머물렀다. 시간이 지나자 동물들은 경계심을 풀고 제인 구달에게 다가왔고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많이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의 시간 없이 믿음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영적 성숙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바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물속에 천천히 잠겨 있으며 온몸으로 은혜가 흘러넘치지만, 성급하게 일어나면 걸만 물에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샤워만 하는 것과 목욕 하는 것이 다르듯, 하나님의 은혜에 폭 적셔져야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나로 인해 가족이, 직장이,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의 말씀 묵상, 기도, 일상 속에서 경건한 언어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폭 잠겨라.

코로나와 함께 일 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다보니 다들 알게 모르게 무감각해지고 조금씩 나태해져 간다.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21:25).

걸만 하나님의 은혜로 적셨다면 이런 시기에 곧 마르게 되어 하나님을 잊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폭 적신 자는 마르지 않고 그 은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수도사 브라더 로렌스의 일화다. 그는 어린 10대 시절 전쟁에 출전했다가 부상을 입어 다리를 절게 되는 불운을 겪었다. 그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나이 오십이 넘어 카르멜 수도원의 주방 일을 맡게 되었다. 그는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최선을 다해 주방 일에 임했다.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면서 부엌을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또 자신이 만든 음식을 수도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항상 감사했고,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자신의 일이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여겨 당당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방 일을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수도사들은 점차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를 수도원 원장 후보로까지 추천한 것이다. 평신도 수도사는 원장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국 그는 수도사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수도원 원장의 자리에 올랐다. 사실 그에게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고, 다리는 불구였으며,

가정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힘든 부엌일을 하면서도 “나의 인생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며 밝은 미소로 임했다.

어느 날 브라더 로렌스는 국왕 루이 12세의 방문을 받았다. 수도원을 방문한 국왕은 그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를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맞다.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이란 점에서 비슷하나 수감된 죄수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감옥이 수도원으로 승화되고, 수도자라도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천국의 삶을 살고, 불평으로 하면 지옥의 삶을 살 것이다. 2021년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 세상을 보는 창 ::

:: 생명의 말씀 ::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 에덴으로 귀환 ::

:: 귀를 기울이세요 ::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

결혼 후 10년이 다 되어서야 아이를 갖게 되어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막상 낳아 키우다 보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2, 30대엔 무얼 해도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서른아홉이 되어 아이를 출산하고 불혹의 나이에 육아를 시작하니 왜 어른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가능해 되었습니다.

아기가 갓 태어난 신생아 때는 하루 동안 2시간에 한 번씩 모유 수유를 하고, 한 달 내내 밤잠을 설치거나 밤을 꼬박 지새우며 보냈습니다. 2~3개월이 되어 수유 간격이 3시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기가 이유 없이 울 땐 그날은 영락없이 한숨도 못 자고 돌봐야 했습니다. 백일이 되니 조금씩 패턴을 찾아 조금 편안하다 할 때 즈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집어 곁에서 내내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히 이삭이는 발육상태가 남달라서 지금 5개월이 갓 지났는데 돌 지난 아기와 같은 키와 몸무게 기록을 경신해서 하루 종일 안아주고 놀아주다 보면 어느새 팔다리가 너털너털해 집니다.

임신 전에는 모든 생활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갔었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일상이 아기를 중심으로 변하게 되

었습니다. 아기를 갖기 전에는 귀 바로 옆에서 새벽 알람 소리가 최대 음량으로 울려도 절대 일어나지 못했던 제가 아기가 조금만 ‘앵~’ 소리를 내도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자면 이불은 뒤집어 쓰지 않았는지, 숨은 쉬고 있는지, 옆에 자는 건 아닌지, 5분에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회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아기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사무실에 아기 침대와 물품들을 다 가져다 놓고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늘 데리고 가고요, 육아와 회사일, 집안일을 다 병행하다 보니 온몸이 쑤시고 피곤한데도 몇 시간이든 아기가 안아달라면 안아주고, 울면 달래주게 됩니다.

며칠 전, 총회장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운유야, 우주를 준다고 하면 이삭이와 바꾸겠냐?” 저는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며, “아뇨. 절대 바꿀 수 없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야, 네 엄마가 그랬어! 우주를 줘도 너와는 절대 못 바꾼다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었만 내가 이삭이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키웠구나.’

엄마의 자식 사랑은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사랑이죠. 세상 모든 엄마의 마음이 이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우주와 바꿀 수 있으실까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엄마가 아기의 작은 소리에도 썩 하고 달려가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젖먹이 아기가 젖을 달라며 악쓰고 울면 엄마가 바로 달려가 젖을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주시지요. 사춘기 소녀가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내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빠져 요동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며 기다리십니다. 우주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 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존재,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일4:9).

김은유 집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풍성한 삶으로 초대

지난 한 해는 나에게 참으로 힘든 해였다. 3년 전, 제주도내 한 대학의 교수로 부임하면서 가졌던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회의감이 들더니 결국 낙심과 우울의 골짜기에 빠져들었다. 돌이켜 보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봐두실 겁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섭섭함과 분노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생각이 뒤섞여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이때 나를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붙잡아 주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이 바로 ‘묵상’이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세 가지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누구나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누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말씀을 읽기만 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셉이, 모세가 나일지도 모르단 생각만 했다. 다윗을 만들고 요셉과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말이다.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말씀’과 부

딛히는 충격을 받은 순간 회개하며 아파했던 경험을 한 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되고, 막막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먹어보지 않고서는 고기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인 다윗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에서 귀 기울이기는 삶, 눈이 시리고 아플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다윗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했다.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삶, 그리고 생각을 나누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것이다. 즉 깊이 묵상하며 말씀 앞에 서면 나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 그분의 생각이 보인다.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 또한 보이기 마련이다. 묵상의 습관은 우리를 성공적인 묵상가로 만드는데 있지 않다. 묵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여호와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시34:8) 되는 것이다.

나는 시편 말씀을 좋아한다. 힘들 때마다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작년 12월, 시편 46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속에 들어온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뉘를 알지어다.” 이 말씀이 내 맘에 들어와 내 삶이 풍성해졌다. 정확히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풍성해졌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으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말씀 앞에서”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미래 가치에 투자하기

한 어머니가 딸의 진로를 고민하며 총회장 목사님을 찾아갔다. 서울교회로, 기도원으로, 목사님 사무실로 목사님을 계속 찾아가 “목사님, 딸이 방송국 PD나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쪽 일이 얼마나 험한지 아시잖아요. 목사님! 제 딸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제가 작정기도를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 번 찾아가서 목사님께 딸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지금이야 멀티미디어 쪽으로 다양한 사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방송 및 영화 쪽 직업은 어렵고 힘든 길로만 여겨졌다. 또, 영상 관련 직업이 대부분의 남자들도 힘든 분야였으니 어머니는 걱정과 근심에 목사님을 지속적으로 찾아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총회장 목사님과 상담을 마치고 오더니 이를 허락해주었다. 목사님은 어머니가 몇 번을 찾아가도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셨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 영상산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은 딸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아 싫겠지만 딸의 능력을 믿으세요! 나중에 이 딸은 분명 영상 쪽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총회장 목사님의 선견지명은 20여년이 지난 후 적중하였고, 이 딸은 자신의 꿈과 소망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방송국에서 PD로 재직하며 활약하고 있고,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헌신봉사하고 있다. 바로 내 이야기다.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처럼 당장 앞의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여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처하고 적응하고 앞서가는 자들이 되자.

송현혜

